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 토착심리학적 분석*

박 영 신[†]

인하대 교육학과

김 의 철

중앙대 심리학과

탁 수 연

인하대 교육학과

한국사회는 IMF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제불황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동 이후에 한국사람의 성공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IMF시대 이전의 선행연구(김의철, 박영신, 1998)와 비교하므로써, 한국사람의 성공에 관련된 사회적 표상을 토착심리학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종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총 988명으로, 초·중·고 대학생 481명과 그들의 부모(236명)·모(271명)로 구성된 성인 507명이었다. 분석결과,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학생은 학업성취를, 성인은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지적하였다. 한국사람들에게 성공적인 가정생활이란,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자녀의 발전 및 화목한 가정을 주로 의미하였다.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가족이었는데, 학생의 경우는 부모, 성인의 경우는 배우자가 가장 많았다. 초·중학생에서는 부모가 특히 중요하고, 고등학생 이후는 친구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어떠한 분야에서든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으로서, 학생과 성인 모두 정서적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과반수 정도의 청소년이 자기조절을 지적하였고, 성인 남자는 자기조절을, 성인 여자는 가정환경을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IMF시대 이전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국가적인 경제 위기상황 이후에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이 더욱 증가하였지만, 학업성취 및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중요성,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로서 부모와 배우자, 이러한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 성공의 원인으로서는 자기조절에 대한 강조와 같은 핵심적인 결과가 일치하였다. 이와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유사한 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토착적인 성공의식을 종합하고, 이러한 의식의 기저에 있는 신념 및 가치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성공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자기조절, 부모와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정서적 지원, 학업성취, 성공적인 가정생활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박영신,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e-mail) yspark@inha.ac.kr

** 예리한 지적으로 논문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특히 전업주부와 직장인주부 사이의 비교에 대한 후속연구를 자극하여 준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국 심리학에서 한국사람 심리에 대한 관심과 접근

해방이후 한국에서 심리학이 학문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연구결과가 누적되어 온지 반백년을 성큼 뛰어넘은 시점에 있다. 그동안 각 하위영역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연구결과들은, 심리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거의 한국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극히 일부 외국인 표집대상도 있으나 그것은 한국사람과의 비교를 위한 집단이지 외국사람의 심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한국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집대상은 한국사람이었지만, 심리학적 연구들에서 사용되어온 기본 가정이나 이론들은 대부분 서양의 학자들이 서양인의 심리학을 연구한 결과들에 토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람의 심리를 연구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보편적 이론의 탐색을 시도하는 노력이 주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도 문화나 개인의 의미와 같은 측면들은 오차변인이나 다름없이 간주되어졌으며, 물리학의 이론법칙과 같이 오로지 일반적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탐구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점차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심리학회는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인간이해의 동서비교”라는 주제로 정하고, 성리학(김성태, 1986)이나 불교(윤호균, 1986)와 같은 동양사상의 가치에 주목하였다. 그 이후 10년이 지나 한국심리학회는 창립 50주년 동계세미나 주제를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한국심리학회, 1996)로 하고, 심리학의 각 영역에서 비교문화연구의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하였다. 이어서 한국심리학회는 1997년도 추계심

포지움을 “동양심리학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하므로써, 유학(한덕웅, 1997) 등과 같은 동양심리학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이해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와 관련된 주제가 심리학 연구에서 오차변인의 위치로부터 논의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문화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사회의 기반이 되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한국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인식되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학회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개인적 최상진(2000)으로도, 한국사람의 정, 한, 심정, 체면, 눈치 등과 같은 토착적인 심리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예컨대 부모자녀관계(방희정, 2000), 기업에서의 신뢰(김명언, 이영석, 2000), 소비자 광고 심리(성영신, 강정석, 2000), 법제도(박광배, 2000), 교통행동(이순철, 2000), 정서와 건강(전경규, 2000), 대인관계(이종한, 2000) 등을,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려는 시도(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0)도 있어왔다.

김의철(Kim & Berry, 1993; Kim, Park, & Park, 2000)은 Sinha(1993)가 제기한 토착화(indigenization)의 개념과 더불어, 토착민의 개념과 의미를 다루는 토착(indigenous)심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물론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정, 체면, 눈치와 같은 한국사람의 고유한 토착적인 개념(indigenous concept)을 연구(최상진, 2000)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보편적으로 심리학에서 다루는 개념들(psychological concept)을 토착심리학적인 전제와 방법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사람의 고유한 심리적 개념은 아니지만, 한국사람의 의식이나 행동에 함축하고 있는 사회적 표상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최근에 다양한 주

제들이 다루어져 왔다. 성취(김의철, 박영신, 1998; Tak, Lee, Park, & Kim, 2001), 스트레스(박영신, 김의철, 2000; Kim & Park, 2000a), 자기(Hamm, Park, & Kim, 2001), 안전행동(박영신, 김의철, 2001; Han, Park, & Kim, 2001)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한국사람의 성취의식에 대한 이해를 위한 토착심리학적 접근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람의 성공의식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서 토착심리학적 접근(Kim, 2000)을 채택하고자 한다. 한국사람의 심리를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규명하려는 시도는, 성취와 관련된 의식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구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Kim, Park, & Park, 1999). 한국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표상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므로써, 한국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의 모색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특정 사회에서의 문화에 젖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내용 그 자체가 의미있고 가치를 지닌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의철(2000)은 일반심리학과 비교문화심리학이 채택하고 있는 실증주의 모형이 심리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한계를 분석하고, 인간의 의도나 의미 등에 대한 설명에 기여하는 상호작용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사람들의 자기의식과 인간관계를 유교철학의 토대에서 설명하고, 나아가서 그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에 관련된 이론적 기초는,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초반(Kim & Berry, 1993)부터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Kim(2000)은 토착심리의 주된 목표가 사람들이 특정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있기 때문에,

토착심리학자는 의미있는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간 행동을 연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토착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아래에서 위로의 모델 구축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에서는 인간의식, 작인(作因, agency), 의미, 목표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설명하는 중심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연구자는 객관적이고 기계적인 지식을 탐색하기 보다는 인간 행동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가치가 부가된 활동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에서의 주제와 자극은 임의적으로 선택된 것이라기 보다, 의미가 있고 맥락화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인간기능의 추상화된 보편적인 법칙을 추구하는 위에서 아래로의 선형적 접근을 채택하는 전통적 심리학의 시각과 상치된다. 선형적 접근에서는 실험이라든가 추론과 같은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객관주의 논리실증주의 보편주의와 같은 과학철학을 채택하므로써, 복잡한 행동을 구성하는 인간행동의 법칙들을 누적하려고 한다. 이러한 심리학에서의 목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객관적 추상적 보편적 관계를 발견하는데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의식이나 작인, 의미, 의도와 같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측면들은 연구설계에서 잡음으로 고려되어 제거된다(Kim, 2000).

한국사람의 성공의식에 대한 경험적 자료

한국사회가 IMF시대를 맞이하기 이전에, 한국사람의 성공의식에 관련된 경험적 분석결과들이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질문하고, 반응으로 '타고난 재능, 꾸준한 노력, 높은 학력, 건강, 좋은 가문, 인품, 재산, 운, 사람과의 인맥' 중에서 선택하게 한 결과(정희옥, 전경숙, 권오실, 1997)에 의하면, 세 나라의 청소년 모두(한국-60.5

%, 중국-68.4%, 일본-56.3%) 꾸준한 노력을 제 1 순위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유교문화권의 동아시아 청소년들이 꾸준한 노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공 및 실패와 관련된 귀인성향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문용린, 류방란, 유한구, 박종효, 최지영, 1996)에서도 노력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초, 중, 고 대학생에게 ‘성적이 오르거나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질문하고 4개 답지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을 때, ‘노력(63.8%) 운(17.7%) 과제(10.3%) 능력(8.1%)’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4,601명의 응답자 중에서 노력의 중요성을 지정한 경우가 2/3를 넘었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패귀인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박영신, 2000)에서 노력의 중요성이 확인되어 왔다.

IMF시대 이후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청소년의 성공관을 분석하기 위해, 정희욱과 이춘화(2000)는 크게 세 측면, ‘성공을 위한 노력, 성공의 의미, 성공의 요인’을 다루었다. ‘장래의 성공은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4개국 모두에서 매우 높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청소년은 90% 이상이 응답함으로써 가장 높았다(한국 -90.4%, 중국 -88.6%, 미국 -87.3%, 일본 -79.2%). 성공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된 8개 질문을 한 결과, 그 중에서 ‘책임이 무거워 진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는데, 국가간에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 청소년들보다 한국 청소년의 반응이 가장 높았다(한국 -87.1%, 미국 -79.6%, 일본 -71.5%, 중국 -26.6%). 또한 성공의 요인을 17개 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할 태도를 갖는 것’(한국-94.7%, 일본-84.8%, 미국-84.5%, 중국-

71.6%)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중요시하는 것’(한국-91.9%, 일본-86.8%, 미국-86.7%, 중국-82.5%) 등이 90% 이상의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한국 청소년의 성공관에 대한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고정된 답지를 제공하고 응답자는 주어진 답지에 대해서 동의 정도만을 표시하므로써, 연구자가 제시하지 않은 측면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핵심이 되는 성공의식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주로 청소년 대상의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한국 성인들의 성공의식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

한편 한국사람의 성공의식과 관련하여 IMF시대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들 중에서,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했던 연구가 있다. 김의철과 박영신(1998)은 과학적인 심리학이 문화적인 면을 다루는 심리학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시각에 기초하여, 한국사람의 성공의식을 한국사람의 사회적 표상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1,157명으로서, 학생 730명(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427명(직장인, 교사, 주부)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은 ‘학업성취’(37.6%)를, 성인은 ‘직업적 성공(37.6%)’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성공이 ‘노력의 대가’(30.1%)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사람들은 성공하는 데 ‘부모’(32.2%)의 도움이 가장 중요했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은 ‘친구’(25.5%)가, 성인은 ‘배우자’(17.1%)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어떤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려 칭찬과 같은 ‘정서적인 지원’(34.7%)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조언이나 가르침과 같은 ‘정보적인 지원’(29.5%)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약 과반수 정도가 열심히

히 노력하고 강한 의지를 갖고 일을 하는 등, 자기조절(41.4%)을 잘하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간주하였다. 특별히 학업이나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 자기조절이 중요하였다. 이외에도 개인의 '성격'(11.2%)이나 '가정환경'(10.7%)이 성공을 위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한국사람의 성취와 관련된 의식을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파악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아래에 제시한 연구문제들은 모두 한국사람의 토착적인 성취의식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 선행연구(김의철, 박영신, 1998)에서 사용한 분석의 틀과 측정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지각하는 성공경험의 내용을 밝히고, 그러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 및 사회적 지원의 내용과,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을 몇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변동에 따른 한국사람들의 성취의식의 변화된 측면과 변화되지 않은 측면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지난 연구들(김의철, 박영신, 1998; 박영신, 김의철, 1999)은 한국사회가 IMF시대가 되기 이전에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했던 결과들이다. 그 이후에 한국사회는 IMF로부터의 경제지원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국민들의 생활은 큰 영향을 받았다. 사회적으로 이와같이 큰 변화를 겪은 뒤에¹⁾,

1) 한국은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접어들어 1997년 12월 3일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한국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취의식의 특징들을 재검토함으로써, 무엇이 변화되었고 무엇이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므로써, 한국사람의 토착적인 성취의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급격한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안정되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들은 한국사람의 토착적인 성취의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표집대상 집단별 구성을 확대하므로써 보다 일반화된 결과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학생집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만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학생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학생과 대학생만이 아니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모두 포함하였다.

셋째, 보다 섬세하게 한국사람의 성취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그동안의 연구에서 활용하여 왔던 분석틀을 교정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한국사람의 성취의식에 대한 본 연구자들의 분석에서는 세대별로 학생과 성인집단으로 분류하고 성별로 남녀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하여왔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선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도움이 되었지만, 학생 집단 내에서도 초 중 고 대학생집단은 인간발달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라는 세 발달단계를 포함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각 하위 집단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지난 연구에서 성별 분석에서

있었다. 2000년 후반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한국은행은 IMF로부터 차입한 차관을 2001년 8월까지 모두 상환하였다. 따라서 'IMF시대'란 공식적으로 IMF의 경제지원이 시작된 1997년 12월부터 차관을 상환한 2001년 8월까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한국사람들이 IMF로부터 경제지원을 받는 급격한 충격에서 심리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한 2000년 후반부터를 IMF시대 이후로 간주하였다.

는 청소년과 성인세대가 모두 포함되었었기 때문에, 비록 전체적인 성별경향을 파악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성별효과와 세대효과가 중첩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집단을 초 중 고 대학생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성인집단을 아버지와 어머니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집단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부모와 자녀의 성취의식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한다. 지난 연구들(김의철, 박영신, 1998; 박영신, 김의철, 1999)에서 학생집단과 별도의 성인집단이 표집되었으며, 성인집단은 직장인 교사 주부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성인집단으로 표집하여 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학생과 부모세대간에 성취의식과 관련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연계성있게 규명하도록 표집설계를 하였다.

방 법

대 상

이 연구를 위해 표집된 대상은 총 3,250명이었다. 2개 초등학교와 인천시 학부모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350명 표집되고 그들의 부모가 표집되었다. 표집된 1개 초등학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학교로서, 학생들의 학력이 높고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도 높은 상위권 학군에 속하는 학교였다. 나머지 1개 초등학교는 공원 근처의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로서, 대체로 학생들의 학력이 낮고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도 낮은 하위권 학군에 속하는 학교였다. 중학교의 경우는 남녀공학 1학교, 여학교 1학교가 표집되었

는데 모두 도 학력평가에서 30여개 학교 중에서 15위 정도에 속하는 중간수준의 학교이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300명과 그들의 부모가 표집되었다. 고등학교는 남자고등학교 2개교와 여자고등학교 2개교를 표집하였는데 각 집단에 학력과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가 중·상인 학교와 중·하인 학교가 모두 포함되었다. 총 4개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350명과 그들의 부모가 표집되었다. 대학교는 비교적 상위권 대학교 1개교에서 대학생 본인만 250명을 표집하였다.

표집대상 중에서 회수된 질문지는 1,221명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가 177명의 학생과 그들의 부모, 중학생은 112명과 그들의 부모, 고등학생은 159명과 그들의 부모, 대학생은 본인 223명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는 제외하고, 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분석된 대상은 988명이었다. 표 1에 제시한 바처럼 학생이 481명(초 116명, 중 88명, 고 72명, 대 205명)이었고, 성인은 507명(부 236명, 모 271명)이었다. 전체적으로 남자가 411명, 여자가 577명이었다. 표집대상 전체 학생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빈도 분석한 결과는, 상(15명, 3.1%) 중·상(61명, 12.7%) 중(297명, 61.6%) 중·하(93명, 19.3%) 하(16명, 3.3%)로서 초 중 고 대학생 집단 각각별로도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성인집단의 경우 부의 평균연령은 42.5세이고 모의 평균연령은 39

표 1. 분석대상

구분	전체	학 생					성 인		
		초	중	고	대	계	부	모	계
남	411	57	40	33	45	175	236	-	236
	577	59	48	39	160	306	-	271	271
계	988	116	88	72	205	481	236	271	507

세이었다. 또한 학력수준을 보면, 부(116명, 49.2%)와 모(173명, 63.8%)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졸(부-82명, 34.7%; 모-46명, 17.0%)이 많았으며, 세 번째로 중졸(부-22명, 9.3%; 모-45명, 16.6%)이었고 대학원 졸업과 초등학교 졸업은 극소수였다.

도 구

IMF시대 이후 한국사람들의 성취의식 측정을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IMF시대 이전에 사용한 질문지와 동일하였다. 즉 성공의식은 김의철과 박영신(1998)이 제작한 것과 동일한 질문지를, 실패의식 및 미래성취의식은 박영신과 김의철(1999)이 제작한 것과 동일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성공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1)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 (2)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3)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 (4)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학생용과 성인용 질문지에서 동일하였다. 배경정보에 관한 문항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용에서는 학교수준, 성별, 가정의 경제수준을, 성인용에서는 연령, 성별,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을 측정문항으로 포함하였다.

실시 및 분석방법

학생의 경우는 초 중 고 대학교 수업시간에 교사가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솔직히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0분~30분이었다. 성인 질문지는 표집 학생에게 나누어 주고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각각 질문지를 실시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2000년 9월~1월 사이에 3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응답자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제공하였다.

자유반응형 문항의 응답에 대해서는, 각 문항별 반응을 모두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그리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반응들을 정리하고, 모아진 반응들을 대표하는 반응을 선정하여 항목(item)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항목의 명칭은 빈도가 가장 많은 반응을 가능한 그대로 하였다. 이와같이 결정된 항목들을 유사한 개념별로 정리하여 그러한 개념들을 대표하는 범주(category)를 결정하고, 범주에 이름을 부여하였다. 확정된 범주와 항목을 분석틀로 하여 각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틀에 따라 양적인 값으로 코딩하였다. 코딩한 자료를 SPSS win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을 하여 분석표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작한 분석표를 학생과 성인의 성공의식에 대한 표상을 분석하는 틀로 활용하였다.

결 과

한국사람의 성공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측면, 즉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 범주와 항목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학업'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가정생활'도 매우 높은 반응을 나타내며, 그 다음으로 '직업' '친구관계/인간관계'

표 2.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 범주와 항목

성공경험	집단	전체 (%)	학 생					성 인		
			초 (%)	중 (%)	고 (%)	대 (%)	계 (%)	부 (%)	모 (%)	계 (%)
1. 학업		328 (33.2)	101 (87.1)	62 (70.5)	52 (72.2)	98 (47.8)	313 (65.1)	9 (3.8)	6 (2.3)	15 (3.0)
① 주관적 평가시 성적 상승		79 (8.0)	27 (23.3)	26 (29.5)	16 (22.2)	9 (4.4)	78 (16.2)	-	1 (.4)	1 (.2)
② 대학재학원진학		50 (5.1)	-	-	-	48 (23.4)	48 (10.0)	2 (.8)	-	2 (.4)
③ 대회에서 입상		44 (4.5)	13 (11.2)	12 (13.6)	11 (15.3)	8 (3.9)	44 (9.1)	-	-	-
④ 학업성취		43 (4.4)	10 (8.6)	11 (12.5)	6 (8.3)	11 (5.4)	38 (7.9)	2 (.8)	3 (1.1)	5 (1.0)
⑤ 상대적 평가시 성적 상승		36 (3.6)	19 (16.4)	5 (5.7)	5 (6.9)	4 (2.0)	33 (6.9)	3 (1.3)	-	3 (.6)
⑥ 학교 외 공부		33 (3.3)	23 (19.8)	3 (3.4)	6 (8.3)	1 (.5)	33 (6.9)	-	-	-
⑦ 학생회 활동		19 (1.9)	9 (7.8)	4 (4.5)	2 (2.8)	3 (1.5)	18 (3.7)	-	1 (.4)	1 (.2)
⑧ 중/고등학교진학검정고시		14 (1.4)	-	1 (1.1)	6 (8.3)	4 (2.0)	11 (2.3)	2 (.8)	1 (.4)	3 (.6)
⑨ 편입시험합격		10 (1.0)	-	-	-	10 (4.9)	10 (2.1)	-	-	-
2. 가정생활		247 (25.0)	2 (1.7)	6 (6.8)	-	8 (3.9)	16 (3.3)	91 (38.5)	140 (51.7)	231 (45.6)
① 자녀교육/자녀발전		75 (7.6)	-	-	-	1 (.5)	1 (.2)	21 (8.9)	53 (19.6)	74 (14.6)
② 화목한 가정		65 (6.6)	-	2 (2.3)	-	3 (1.5)	5 (1.0)	34 (14.4)	26 (9.6)	60 (11.8)
③ 결혼생활		50 (5.1)	-	-	-	-	-	24 (10.2)	26 (9.6)	50 (9.9)
④ 자녀출산		25 (2.5)	-	-	-	-	-	4 (1.7)	21 (7.7)	25 (4.9)
⑤ 가족과의 관계		17 (1.7)	2 (1.7)	4 (4.5)	-	4 (2.0)	10 (2.1)	2 (.8)	5 (1.8)	7 (1.4)
⑥ 배우자와의 만남		15 (1.5)	-	-	-	-	-	6 (2.5)	9 (3.3)	15 (3.0)
3. 직업		128 (13.0)	-	-	-	6 (3.0)	6 (1.2)	72 (30.6)	50 (18.5)	122 (24.1)
① 사업 번창		40 (4.1)	-	-	-	-	-	31 (13.1)	9 (3.3)	40 (7.9)
② 직업만족		40 (4.1)	-	-	-	-	-	30 (12.7)	10 (3.7)	40 (7.9)
③ 취업		24 (2.4)	-	-	-	3 (1.5)	3 (.6)	7 (3.0)	14 (5.2)	21 (4.1)
④ 진로결정		14 (1.4)	-	-	-	3 (1.5)	3 (.6)	1 (.4)	10 (3.7)	11 (2.2)
⑤ 재취업/새로운 사업		10 (1.0)	-	-	-	-	-	3 (1.3)	7 (2.6)	10 (2.0)
4. 친구관계/인간관계		75 (7.6)	3 (2.6)	6 (6.8)	14 (19.4)	31 (15.1)	54 (11.2)	15 (6.4)	6 (2.2)	21 (4.1)
① 친구관계		50 (5.1)	2 (1.7)	4 (4.5)	12 (16.7)	24 (11.7)	42 (8.7)	6 (2.5)	2 (.7)	8 (1.6)
② 인간관계		25 (2.5)	1 (.9)	2 (2.2)	2 (2.8)	7 (3.4)	12 (2.5)	9 (3.8)	4 (1.5)	13 (2.6)
5. 자기 개발		67 (7.0)	8 (6.9)	6 (6.8)	3 (4.2)	22 (10.8)	39 (8.1)	10 (4.3)	18 (6.5)	28 (5.5)
① 자기개발		26 (2.7)	1 (.9)	2 (2.3)	1 (1.4)	6 (2.9)	10 (2.1)	4 (1.7)	12 (4.4)	16 (3.2)
② 자아 발견		16 (1.6)	3 (2.6)	2 (2.3)	1 (1.4)	8 (3.9)	14 (2.9)	-	2 (.7)	2 (.4)
③ 새로운 경험		15 (1.5)	4 (3.4)	2 (2.3)	1 (1.4)	6 (2.9)	13 (2.7)	-	2 (.7)	2 (.4)
④ 어려움 극복/DMF 극복		10 (1.0)	-	-	-	2 (1.0)	2 (.4)	6 (2.5)	2 (.7)	8 (1.6)
6. 경제적 독립		48 (4.3)	-	-	1 (1.4)	7 (3.4)	8 (1.7)	14 (5.9)	21 (7.7)	35 (6.9)
① 집 장만/이사		31 (3.1)	-	-	1 (1.4)	-	1 (.2)	12 (5.1)	18 (6.6)	30 (5.9)
② 경제적 독립		17 (1.2)	-	-	-	7 (3.4)	7 (1.5)	2 (.8)	3 (1.1)	5 (1.0)
7. 기타		100 (10.0)	2 (1.7)	8 (9.1)	2 (2.8)	33 (16.0)	45 (9.5)	25 (10.6)	30 (11.0)	55 (10.9)
① 여가활동		25 (2.5)	-	-	1 (1.4)	9 (4.4)	10 (2.1)	3 (1.3)	12 (4.4)	15 (3.0)
② 없음		23 (2.3)	1 (.9)	5 (5.7)	1 (1.4)	5 (2.4)	12 (2.5)	6 (2.5)	5 (1.8)	11 (2.2)
③ 현재 생활에 만족		23 (2.3)	1 (.9)	1 (1.1)	-	6 (2.9)	8 (1.7)	7 (3.0)	8 (3.0)	15 (3.0)
④ 신앙생활		17 (1.7)	-	2 (2.3)	-	5 (2.4)	7 (1.5)	5 (2.1)	5 (1.8)	10 (2.0)
⑤ 군대생활		12 (1.2)	-	-	-	8 (3.9)	8 (1.7)	4 (1.7)	-	4 (.8)
계		988(100)	116 (100)	88 (100)	72 (100)	205 (100)	481 (100)	236 (100)	271 (100)	507 (100)

‘자기개발’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경제적 독립’이 지적되었다. 그러한 전체경향은 학생과 성인 집단별로 분석하였을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학생의 경우에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학업’을 지적한 경우가 65.1%나 되므로써 과반수를 훨씬 넘는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두 번째로는 ‘친구관계/인간관계’와 관련된 성공경험이 11.2%로 10%를 상회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개발’이 8.1%를 나타내었다. ‘학업’ 범주에 포함된 항목들을 보면, 성적향상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고, 특별히 대학생의 경우에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이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모든 학생집단이 ‘학업’을 가장 많이 지적한 점은 공통적이나, 초 중 고등학생은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으로 ‘학업’을 지적한 경우가 모두 70%를 상회하므로써 압도적인 반응율을 나타내는 반면에, 대학생은 47.8%로 과반수 정도에 이르렀다. ‘학업’에 포함된 항목을 보면,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는 ‘성적 상승’이, 대학생은 ‘대학진학’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대학생은 초 중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개발’에 대한 반응율이 높았다. ‘친구관계/인간관계’의 반응율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성인의 경우는 학생과 달리 ‘가정생활’에 대해 45.6%가 반응하고, 그 다음으로 ‘직업’이 24.1%로 약 1/4에 해당하는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경향은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는 ‘가정생활’에 대해 과반수 이상(51.7%)이 지적하고, ‘직업’에 대해서는 18.5%가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아버지는 ‘가정생활’(38.5%)과 ‘직업’(30.6%)에서의 성공에 대한 반응율이 유사하였다. 따라서 직업에서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높은 경향은 주로 남자 성인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생활’ 범주에서 어

머니 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을 보면, ‘자녀교육/자녀발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직업’ 범주에서 아버지 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을 보면 ‘사업번창’ ‘직업만족’의 반응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학생은 3명 중 2명 정도가 학업과 관련된 성취에 대해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므로써, 한국 학생들에게 학업에서의 성취는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업에서의 성취경험은 초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더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있어 학업성취는 성적의 향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대학생의 경우는 대학진학이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로 인식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대학생은 초 중 고등학생에 비해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친구관계나 인간관계에서의 성공이 중요한 비율은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중요하게 지각하므로써,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갈수록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학생집단과 대조적으로 성인의 경우는 약 과반수가 가정생활이 성공적일 때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생활의 중요성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집단에서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중핵이 되고 있는 내용은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던가 자녀가 발전한다던가와 같은 자녀의 성취이며, 이 외에도 화목한 가정 등이 포함되고 있다.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 집단의 경우는 가정생활과 마찬가지로 직업에서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직업에서의 자랑스러운 성취로는 사업의 번창이나 직업에서의 만족이 주로 지적되었다.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 부모와 자녀의 비교

표 3은 부모와 자녀집단간에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먼저 아버지와 자녀집단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학업성취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경우에 '가정생활'(39.2%)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직업'(29.0%)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업' 외의 다른 성공경험에 대해서는 반응율이 낮았다. 어머니와 자녀집단을 비교한 결과는 자녀가 '학업'을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로 생각하는 경우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들도 '가정생활'(53.1%)을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직업'(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중요성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서 더욱 확연히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업에서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들일수록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자랑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표 2에서 '가정생활'의

표 3.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 부모와 자녀의 비교

<아버지와 자녀집단>

부 자녀	학업	가정생활	직업	친구관계/ 인간관계	자기개발	경제적독립	기타
학업	6(3.2)	3(50.0)	-	-	-	-	-
가정생활	73(39.2)	1(16.7)	-	4(25.0)	6(35.3)	2(66.7)	5(62.5)
직업	54(29.0)	2(33.3)	-	8(50.0)	6(35.3)	1(33.3)	1(12.5)
친구관계/인간관계	12(6.5)	-	-	1(6.3)	1(5.9)	-	1(12.5)
자기개발	9(4.8)	-	-	1(6.3)	-	-	-
경제적 독립	14(7.5)	-	-	-	-	-	-
기타	18(9.7)	-	-	2(12.5)	4(23.5)	-	1(12.5)
계	186(100.0)	6(100.0)	0(100.0)	16(100.0)	17(100.0)	3(100.0)	8(100.0)

<어머니와 자녀집단>

모 자녀	학업	가정생활	직업	친구관계/ 인간관계	자기개발	경제적독립	기타
학업	5(2.3)	-	-	-	-	-	1(10.0)
가정생활	113(53.1)	1(14.3)	-	13(65.0)	10(55.6)	1(33.3)	2(20.0)
직업	42(19.7)	-	-	5(25.0)	3(16.7)	-	-
친구관계/인간관계	4(1.9)	-	-	-	1(5.6)	-	1(10.0)
자기개발	15(7.0)	1(14.3)	-	-	-	-	2(20.0)
경제적 독립	16(7.5)	2(28.6)	-	1(5.0)	-	-	2(20.0)
기타	18(8.5)	3(42.9)	-	1(5.0)	4(22.2)	2(66.7)	2(20.0)
계	213(100.0)	7(100.0)	-	20(100.0)	18(100.0)	3(100.0)	10(100.0)

범주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 '자녀의 교육적 성취'나 '자녀의 발전'이 포함되었던 것과 관련시켜 보면, 자녀들이 높은 학업성취를 할수록 부모들이 그것을 자기 인생에서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그리고 이와같이 자녀의 성공적인 학업성취와 가정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자녀집단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학업성취'를 지적한 학생들을 선별하고, 이러한 학생들의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지적한 아버지들을 선별하여, '성공적인 가정생활' 범주의 하위 항목들에 대한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동일한 과정을 어머니집단에 대해서도 적용한 결과가 표 4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먼저 아버지와 자녀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가 학업을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지적한 경우에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하위 항목 중에서 '화목한 가정'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두 번째로는 '자녀교육/자녀발전'에 대한 반응율이 높았다. 어머니와 자녀집단의 분석결과를 보면, 학업성취를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으로 응답한 자녀들의 어머니들은 '성공적인 가정생활' 중에서 '자녀교육/자녀발전'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두 번째가 '화목한 가정'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미루어 보아, 학업에서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녀의 부모들일수록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자랑스럽게 인식하고,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자기 인생에서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집단에서 더욱 현저하였다.

표 4.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 부모의 가정생활 성공과 자녀의 학업성취 비교

<아버지와 자녀집단>

부 가정생활성취	자녀	학 업
자녀교육/자녀발전		19(30.1)
화목한 가정		27(42.8)
결혼생활		10(15.8)
자녀출산		3(4.8)
가족과의 관계		2(3.2)
배우자와의 만남		2(3.2)
계		63(100)

<어머니와 자녀집단>

모 가정생활성취	자녀	학 업
자녀교육/자녀발전		42(43.3)
화목한 가정		21(21.7)
결혼생활		11(11.3)
자녀출산		18(18.6)
가족과의 관계		3(3.1)
배우자와의 만남		2(2.0)
계		97(100)

성공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범주와 항목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가 30.3%로 가장 많고, 배우자 등 '부모 외 가족'이 28.4%로 유사한 비율을 보이므로, 합하면 가족이 58.4%로 10명 중 6명 정도는 가족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나 자신' '친구' '선생님'이 각각 10.0% 내외로 비슷한 비율을 보

표 5.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범주와 항목

도움 준 사람	집단	전체(%)	학 생					성 인		
			초 (%)	중 (%)	고 (%)	대 (%)	계 (%)	부 (%)	모 (%)	계 (%)
1. 부모님		286 (30.3)	65 (56.0)	45 (51.1)	21 (29.2)	58 (31.5)	189 (41.1)	34 (15.1)	63 (24.2)	97 (20.0)
① 부모님		179 (19.0)	32 (27.6)	31 (35.2)	15 (20.8)	39 (21.2)	117 (25.4)	24 (10.7)	38 (14.6)	62 (12.8)
② 어머니		86 (9.1)	28 (24.1)	8 (9.1)	5 (6.9)	17 (9.2)	58 (12.6)	7 (3.1)	21 (8.1)	28 (5.8)
③ 아버지		21 (2.2)	5 (4.3)	6 (6.8)	1 (1.4)	2 (1.1)	14 (3.0)	3 (1.3)	4 (1.5)	7 (1.4)
2. 부모 외 가족		268 (28.4)	12 (10.3)	4 (4.5)	4 (5.6)	15 (8.2)	35 (7.6)	110 (48.9)	123 (47.3)	233 (48.0)
① 배우자		157 (16.6)	-	-	-	-	-	78 (34.7)	79 (30.4)	157 (32.4)
② 가족		77 (8.1)	9 (7.8)	4 (4.5)	2 (2.8)	7 (3.8)	22 (4.8)	28 (12.4)	27 (10.4)	55 (11.3)
③ 형제 자매		24 (2.5)	3 (2.6)	-	2 (2.8)	8 (4.3)	13 (2.8)	3 (1.3)	8 (3.1)	11 (2.3)
④ 자녀		10 (1.1)	-	-	-	-	-	1 (0.4)	9 (3.5)	10 (2.1)
3. 나 자신		99 (10.5)	3 (2.6)	8 (9.1)	8 (11.1)	27 (14.7)	46 (10.0)	28 (12.4)	25 (9.6)	53 (10.9)
① 도움받지 않음		57 (6.0)	-	-	5 (6.9)	15 (8.2)	20 (4.3)	19 (8.4)	18 (6.9)	37 (7.6)
② 나 자신		42 (4.4)	3 (2.6)	8 (9.1)	3 (4.2)	12 (6.5)	26 (5.7)	9 (4.0)	7 (2.7)	16 (3.3)
4. 친구		94 (9.9)	2 (1.7)	10 (11.4)	16 (22.2)	38 (20.7)	66 (14.3)	17 (7.6)	11 (4.2)	28 (5.8)
5. 선생님		93 (9.8)	29 (25.0)	16 (18.2)	19 (26.4)	20 (10.9)	84 (18.3)	5 (2.2)	4 (1.5)	9 (1.9)
① 학교선생님		70 (7.4)	20 (17.2)	13 (14.8)	11 (15.3)	17 (9.2)	61 (13.3)	5 (2.2)	4 (1.5)	9 (1.9)
② 학원선생님		23 (2.4)	9 (7.8)	3 (3.4)	8 (11.1)	3 (1.6)	23 (5.0)	-	-	-
6. 주변사람들		52 (5.5)	2 (1.8)	4 (4.5)	1 (1.4)	10 (5.4)	17 (3.7)	23 (10.2)	12 (4.6)	35 (7.1)
① 직장동료		23 (2.4)	-	-	-	-	-	18 (8.0)	5 (1.9)	23 (4.7)
② 주변사람		19 (2.0)	1 (0.9)	-	-	10 (5.4)	11 (2.4)	4 (1.8)	4 (1.5)	8 (1.6)
③ 친척		10 (1.1)	1 (0.9)	4 (4.5)	1 (1.4)	-	6 (1.3)	1 (0.4)	3 (1.2)	4 (0.8)
7. 기타		53 (5.6)	3 (2.6)	1 (1.1)	3 (4.2)	26 (8.7)	23 (5.0)	8 (3.6)	22 (8.5)	30 (6.2)
① 종교		34 (3.6)	-	-	2 (2.8)	13 (7.1)	15 (3.3)	4 (1.8)	15 (5.8)	19 (3.9)
② 기타		19 (2.0)	3 (2.6)	1 (1.1)	1 (1.4)	3 (1.6)	8 (1.7)	4 (1.8)	7 (2.7)	11 (2.3)
계		945(100)	116 (100)	88 (100)	72 (100)	184 (100)	460 (100)	225 (100)	260 (100)	485 (100)

이고, 기타 주변사람들에 대한 반응도 있었다. 학생의 경우는 41%가 부모님을 지적하므로써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18.3%)과 친구(14.3%)가 각각 10% 이상의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50% 이상이 '부모'를 지적하였으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30% 내외에 머물렀다. 대신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친구'를 지적한 경우가 20% 이상으로 초등학생

이나 중학생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성인의 경우는 학생과 달리 '부모 외 가족'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배우자가 3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에 '부모'가 20.0%로 두 번째로 높은 반응율을 보였고, 10% 이상이 '나 자신'이라고 반응하였다. 성인 남자와 여자 집단간에 반응패턴에 큰 차이는 없었다. 학생과 성인 모두 '부모' 범주에서 '부모'

항목이 가장 많은 반응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순서로서, 부모를 구분한 경우는 '어머니'에 대한 반응율이 더 높았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을 위해 부모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나 친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학생까지는 부모가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고등학생 이후에도 물론 부모가 중요하지만 초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구의 중요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의 경우

는 남자나 여자 모두 배우자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도움이 중요하였다. 그리고 학생과 성인 모두 부모 중에서 구체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도움이 가장 컸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성공 범주별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여러 가지 유형의 성공범주들 각각에 대해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학생집단의 경우

표 6. 성공 범주별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학생집단>

도움 준 사람 \ 성공	학업	가정생활	직업	친구관계/ 인간관계	자기개발	경제적독립
부모	135(43.8)	8(53.3)	1(16.7)	16(33.3)	15(42.9)	3(37.5)
부모 외 가족	21(6.8)	4(26.7)	1(16.7)	2(4.2)	3(8.6)	-
나 자신	30(9.7)	2(13.3)	1(16.7)	4(8.3)	4(11.4)	1(12.5)
친구	35(11.4)	-	1(16.7)	16(33.3)	7(20.0)	-
선생님	76(24.7)	-	-	3(6.3)	1(2.9)	-
주변사람들	1(.3)	-	-	3(6.3)	3(8.6)	3(37.5)
기타	10(3.2)	1(6.7)	2(33.3)	4(8.3)	2(5.7)	1(12.5)
계	308(100.0)	15(100.0)	6(100.0)	48(100.0)	35(100.0)	8(100.0)

<성인집단>

도움 준 사람 \ 성공	학업	가정생활	직업	친구관계/ 인간관계	자기개발	경제적독립
부모	6(40.0)	49(21.7)	18(15.8)	5(23.8)	5(20.8)	3(9.1)
부모 외 가족	5(33.3)	133(58.8)	47(41.2)	8(38.1)	13(54.2)	14(42.4)
나 자신	2(13.3)	15(6.6)	16(14.0)	1(4.8)	2(8.3)	4(12.1)
친구	-	7(3.1)	11(9.6)	4(19.0)	1(4.2)	1(3.0)
선생님	-	2(.9)	5(4.4)	-	-	1(3.0)
주변사람들	2(13.3)	7(3.1)	14(12.3)	3(14.3)	1(4.2)	3(9.1)
기타	-	13(5.8)	3(2.6)	-	2(8.3)	7(21.2)
계	15(100.0)	226(100.0)	114(100.0)	21(100.0)	24(100.0)	33(100.0)

를 보면, ‘학업’에서의 성공은 ‘부모’(43.8%)로부터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인간관계’에서 성공의 경우는 ‘친구’(33.3%)의 도움과 ‘부모’(33.3%)의 도움 정도가 유사하였다. 성인집단의 경우에, ‘가정생활’에서의 성공은 ‘부모 외 가족’(58.8%)이라는 반응이 과반수가 넘고, 그 다음으로 ‘부모’(21.7%)가 지적되었다. 또한 ‘직업’에서의 성공은 ‘부모 외 가족’(41.2%)의 반응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표 5에 제시된 바처럼 학생들에게 부모의 도움이, 성인들에게는 배우자의 도움이 가

장 중요한데, 표 6에 나타난 결과와 관련하여 보면 학생의 경우는 이러한 부모의 도움이 학업성취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고, 성인의 경우에 배우자의 도움은 성공적인 가정생활이나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 특별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부모와 자녀의 비교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의식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들이 누구로부터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는지

표 7.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부모와 자녀의 비교

<아버지와 자녀집단>

부 자녀	부모	부모외 가족	나자신	친구	선생님	주변사람들	기타
부모	17(14.5)	3(20.0)	2(14.3)	3(21.4)	9(16.4)	-	-
부모 외 가족	52(44.4)	6(40.0)	11(78.6)	8(57.1)	27(49.1)	1(100.0)	1(100.0)
나 자신	17(14.5)	1(6.7)	1(7.1)	-	7(12.7)	-	-
친구	8(6.8)	3(20.0)	-	1(7.1)	4(7.3)	-	-
선생님	4(3.4)	-	-	-	1(1.8)	-	-
주변사람들	13(11.1)	2(13.3)	-	2(14.3)	5(9.1)	-	-
기타	6(5.1)	-	-	-	2(3.6)	-	-
계	117(100.0)	15(100.0)	14(100.0)	14(100.0)	55(100.0)	1(100.0)	1(100.0)

<어머니와 자녀집단>

모 자녀	부모	부모외 가족	나자신	친구	선생님	주변사람들	기타
부모	39(31.7)	4(20.0)	3(14.3)	6(24.0)	10(16.4)	-	-
부모외 가족	50(40.7)	15(75.0)	9(42.9)	9(36.0)	34(55.7)	1(100.0)	2(100.0)
나자신	13(10.6)	-	1(4.8)	3(12.0)	8(13.1)	-	-
친구	7(5.7)	-	1(4.8)	-	1(1.6)	-	-
선생님	2(1.6)	-	-	-	2(3.3)	-	-
주변사람들	5(4.1)	1(5.0)	2(9.5)	1(4.0)	3(4.9)	-	-
기타	7(5.7)	-	5(23.8)	6(24.0)	3(4.9)	-	-
계	123(100.0)	20(100.0)	21(100.0)	25(100.0)	61(100.0)	1(100.0)	2(100.0)

모두 아버지들은 ‘부모의 가족’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집단에서도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이 ‘부모의 가족’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는 표 5의 결과, 즉 성인들에게 있어 배우자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

범주와 항목

표 8은 “당신이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들을

표 8.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 범주와 항목

도움 내용	집단	전체(%)	학 생					성 인		
			초 (%)	중 (%)	고 (%)	대 (%)	계 (%)	부 (%)	모 (%)	계 (%)
1. 정서적 지원		375 (38.6)	29 (25.0)	35 (40.2)	27 (38.0)	87 (42.6)	178 (37.2)	97 (41.8)	100 (38.3)	197 (40.0)
① 정신적 도움		91 (9.4)	8 (6.9)	9 (10.3)	4 (5.6)	19 (9.3)	40 (8.4)	34 (14.7)	17 (6.5)	51 (10.3)
② 격려와 칭찬		61 (6.5)	10 (8.6)	7 (8.0)	6 (8.5)	16 (7.8)	39 (8.2)	9 (3.9)	15 (5.7)	24 (4.9)
③ 관심과 사랑		59 (6.1)	2 (1.7)	4 (4.6)	2 (2.8)	7 (3.4)	15 (3.1)	19 (8.2)	25 (9.6)	44 (8.9)
④ 나를 믿어줌		50 (5.2)	-	2 (2.3)	4 (5.6)	10 (4.9)	16 (3.3)	14 (6.0)	20 (7.7)	34 (6.9)
⑤ 내 얘기를 들어줌		35 (3.6)	1 (.9)	4 (4.6)	4 (5.6)	11 (5.4)	20 (4.2)	9 (3.9)	6 (2.3)	15 (3.0)
⑥ 위로		24 (2.5)	1 (.9)	2 (2.3)	1 (1.4)	6 (2.9)	10 (2.1)	7 (3.0)	7 (2.7)	14 (2.8)
⑦ 자신감을 심어줌		22 (2.3)	2 (1.7)	4 (4.6)	2 (2.8)	8 (3.9)	16 (3.3)	2 (.9)	4 (1.5)	6 (1.2)
⑧ 희망과 용기		19 (2.0)	2 (1.7)	3 (3.4)	1 (1.4)	6 (2.9)	12 (2.5)	3 (1.3)	4 (1.5)	7 (1.4)
⑨ 나 자신을 깨닫게 해줌		12 (1.2)	3 (2.6)	-	3 (4.2)	4 (2.0)	10 (2.1)	-	2 (.8)	2 (.4)
2. 정보적 지원		180 (18.5)	40 (34.5)	22 (25.3)	20 (28.2)	42 (20.6)	124 (26.0)	30 (12.9)	26 (10.0)	56 (11.4)
① 가르침/배움		98 (10.0)	30 (25.9)	19 (21.8)	12 (16.9)	25 (12.3)	86 (18.0)	3 (1.3)	9 (3.4)	12 (2.4)
② 정보 제공		49 (5.1)	5 (4.3)	2 (2.3)	4 (5.6)	9 (4.4)	20 (4.2)	19 (8.2)	10 (3.8)	29 (5.9)
③ 여러가지 조언들		33 (3.4)	5 (4.3)	1 (1.1)	4 (5.6)	8 (3.9)	18 (3.8)	8 (3.4)	7 (2.7)	15 (3.0)
3. 경제적 지원		167 (17.2)	20 (25.0)	15 (17.2)	9 (12.7)	42 (20.6)	86 (18.0)	39 (16.8)	42 (16.1)	81 (16.4)
4. 적절한 환경 조성		116 (12.0)	17 (14.7)	10 (11.5)	8 (11.3)	7 (3.4)	42 (8.8)	33 (14.2)	41 (15.7)	74 (15.0)
① 나에게 모범을 보인 것		50 (5.2)	2 (1.7)	2 (2.3)	3 (4.2)	2 (1.0)	9 (1.9)	20 (8.6)	21 (8.0)	41 (8.3)
② 가정 교육		34 (3.5)	2 (1.7)	1 (1.1)	1 (1.4)	2 (1.0)	6 (1.3)	12 (5.2)	16 (6.1)	28 (5.7)
③ 환경 조성		19 (2.0)	7 (6.0)	5 (5.7)	2 (2.8)	1 (.5)	15 (3.1)	1 (.4)	3 (1.1)	4 (.8)
④ 경쟁심 유발		13 (1.3)	6 (5.2)	2 (2.3)	2 (2.8)	2 (1.0)	12 (2.5)	-	1 (.4)	1 (.2)
5. 협조		90 (9.3)	7 (6.0)	4 (4.6)	2 (2.8)	21 (10.3)	34 (7.1)	22 (9.4)	34 (13.0)	56 (11.4)
① 모든 면에서 함께 함		34 (3.5)	4 (3.4)	1 (1.1)	1 (1.4)	9 (4.4)	15 (3.1)	8 (3.4)	11 (4.2)	19 (3.9)
② 함께 일함		30 (3.1)	3 (2.6)	-	-	11 (5.4)	14 (2.9)	7 (3.0)	9 (3.4)	16 (3.2)
③ 협조		26 (2.7)	-	3 (3.4)	1 (1.4)	1 (.5)	5 (1.0)	7 (3.0)	14 (5.4)	21 (4.3)
6. 기타		43 (4.4)	3 (2.6)	1 (1.1)	5 (7.0)	5 (2.5)	14 (2.9)	11 (4.7)	18 (6.9)	29 (5.9)
① 없음		35 (3.6)	3 (2.6)	1 (1.1)	3 (4.2)	3 (1.5)	10 (2.1)	11 (4.7)	14 (5.4)	25 (5.1)
② 기타		8 (.8)	-	-	2 (2.8)	2 (1.0)	4 (.8)	-	4 (1.5)	4 (.8)
계		971(100)	116 (100)	87 (100)	71 (100)	204 (100)	478 (100)	232 (100)	261 (100)	493 (100)

정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서적 지원'(38.6%)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보적 지원'(18.5%)과 '경제적 지원'(17.2%)이 비슷한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이 외에 '적절한 환경조성'과 '협조'가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정서적 지원'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항목들로는 정신적 도움, 격려와 칭찬, 관심과 사랑, 나를 믿어 줌, 내 얘기를 들어 줌 등이었다.

학생(37.2%)과 성인(40.0%) 모두 '정서적 지원'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은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그런데 학생은 '정서적 지원' 다음으로 '정보적 지원'(26.0%) '경제적 지원'(18.0%)의 순서를 나타낸 것에 비해, 성인은 '경제적 지원'(16.4%) '적

절한 환경조성'(15.0%)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학생집단 내에서 비교해 보면,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정서적 지원'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초등학생은 오히려 '정보적 지원'의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지원'이 많은 차이가 있었다. 성인집단 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의 반응형태는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성취경험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가장 중요한 도움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격려와 칭찬, 관심과 사랑, 믿어 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과 같은 정서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는 정서적인 지원 다

표 9. 성공 범주별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

<학생집단>

도움내용 \ 성공	학업	가정생활	직업	친구관계/ 인간관계	자기개발	경제적독립
정서적 지원	117(37.6)	8(53.3)	2(40.0)	17(31.5)	15(38.5)	2(25.0)
정보적 지원	100(32.2)	1(6.7)	2(40.0)	9(16.7)	3(7.7)	1(12.5)
경제적 지원	50(16.1)	-	1(20.0)	10(18.5)	11(28.2)	2(25.0)
적절한 환경 조성	23(7.4)	3(20.0)	-	6(11.1)	5(12.8)	2(25.0)
협조	20(6.4)	1(6.7)	-	6(11.1)	4(10.3)	1(12.5)
기타	1(.3)	2(13.3)	-	6(11.1)	1(2.6)	-
계	311(100.0)	15(100.0)	5(100.0)	54(100.0)	39(100.0)	8(100.0)

<성인집단>

도움내용 \ 성공	학업	가정생활	직업	친구관계/ 인간관계	자기개발	경제적독립
정서적 지원	8(61.5)	9(41.9)	47(40.5)	9(42.9)	10(40.0)	11(32.4)
정보적 지원	-	21(9.2)	22(19.0)	2(9.5)	2(8.0)	8(23.5)
경제적 지원	3(23.1)	38(16.6)	15(12.9)	4(19.0)	5(20.0)	5(14.7)
적절한 환경 조성	1(7.7)	39(17.0)	13(11.2)	4(19.0)	3(12.0)	4(11.8)
협조	1(7.7)	26(11.4)	14(12.1)	2(9.5)	2(8.0)	3(8.8)
기타	-	9(3.9)	5(4.3)	-	3(12.0)	3(8.8)
계	13(100.0)	229(100.0)	116(100.0)	21(100.0)	25(100.0)	34(100.0)

음으로 정보적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성인들은 경제적 지원을 정보적 지원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공 범주별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

표 9는 각각의 성공 범주별로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의 내용을 정리한 결과이다. 학생집단의 경우에 모든 성공 범주에서 '정서적 지원'의 반응율이 가장 높았다. 성인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공 범주에서 '정서적 지원'의 반응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학생과 성인세대 집단에 관계없이 어떠한 분야에서의 성취경험 이든간에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공에 도움을 준 사람 범주별 도움의 내용

표 10은 성공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각각 주로 어떠한 도움을 많이 주었는가를 분석한 내용이다. 학생집단의 경우를 보면, '부모' '부모의 가족' '나자신' '친구' 범주에서 모두 '정서적 지원'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선생님'의 경우는 '정보적 지원'(65.1%)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성인 집단의 경우는 '부모' '부모의 가족' '나자신'에게서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주변사람들'이나 '친구'로부터는 '정서적 지원'보다 '정보적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학생이나 성인 모두 성공을 위해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

표 10. 성공에 도움을 준 사람 범주별 도움의 내용

<학생집단>

도움내용 \ 사람	부모	부모의 가족	나자신	친구	선생님	주변사람들
정서적 지원	69(36.7)	16(45.7)	18(40.0)	28(42.4)	20(23.8)	7(41.2)
정보적 지원	45(23.9)	8(22.9)	1(2.2)	9(13.6)	54(64.3)	3(17.6)
경제적 지원	44(23.4)	5(14.3)	10(22.2)	15(22.7)	4(4.8)	2(11.8)
적절한 환경 조성	22(11.7)	3(8.6)	1(2.2)	3(4.5)	4(4.8)	3(17.6)
협조	6(3.2)	2(5.7)	9(20.0)	10(15.2)	2(2.4)	1(5.9)
기타	2(1.1)	1(2.9)	6(13.3)	1(1.5)	-	1(5.9)
계	188(100.0)	35(100.0)	45(100.0)	66(100.0)	84(100.0)	17(100.0)

<성인집단>

도움내용 \ 사람	부모	부모의 가족	나자신	친구	선생님	주변사람들
정서적 지원	32(33.7)	120(51.9)	12(23.1)	8(29.6)	2(28.6)	10(28.6)
정보적 지원	7(7.4)	11(4.8)	1(1.9)	10(37.0)	2(28.6)	16(45.7)
경제적 지원	22(23.2)	37(16.0)	10(19.2)	2(7.4)	1(14.3)	3(8.6)
적절한 환경 조성	26(27.4)	32(13.9)	4(7.7)	4(14.8)	1(14.3)	1(2.9)
협조	7(7.4)	28(12.1)	9(17.3)	3(11.1)	-	3(8.6)
기타	1(1.1)	3(1.3)	16(30.8)	-	1(14.3)	2(5.7)
계	95(100.0)	231(100.0)	52(100.0)	27(100.0)	7(100.0)	35(100.0)

났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는 선생으로부터, 성인의 경우는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원보다는 정보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는 차이가 있었다.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

부모와 자녀의 비교

부모와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에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의 아버지와 자녀집단, 어머니와 자녀집단 각각의 분석 모두에서 자녀가 어떠한 사회적 지원을 받은 경우 이들 부모들은 모두 정서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 범주와 항목

표 12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조절’(39.1%)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가정환경’(26.3%), ‘주위 사람의 도움’(10.7%)이 10% 이상의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외에 ‘성격’과 ‘긍정적 태도’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자기조절’ 범주를 가장 대표하는 항목은 ‘노력’(16.6%)이었으며, 이외에 ‘신념’ ‘의지’ ‘인내’ ‘성취욕구’ 등이 포함되었다.

표 11.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 부모와 자녀의 비교

<아버지와 자녀집단>

부	자녀	정서적지원	정보적지원	경제적지원	적절한 환경조성	협조	기타
정서적 지원		31(39.2)	35(43.8)	16(45.7)	11(45.8)	3(30.0)	1(25.0)
정보적 지원		12(15.2)	6(7.5)	3(8.6)	6(25.0)	2(20.0)	1(25.0)
경제적 지원		15(19.0)	14(17.5)	6(17.1)	2(8.3)	2(20.0)	-
적절한 환경조성		12(15.2)	9(11.3)	7(20.0)	3(12.5)	2(20.0)	-
협조		6(7.6)	11(13.8)	2(5.7)	2(8.3)	-	1(20.0)
기타		3(3.8)	5(6.3)	1(2.9)	-	1(10.0)	1(20.0)
계		79(100.0)	80(100.0)	35(100.0)	24(100.0)	10(100.0)	4(100.0)

<어머니와 자녀집단>

모	자녀	정서적지원	정보적지원	경제적지원	적절한 환경조성	협조	기타
정서적 지원		34(38.6)	32(37.2)	22(50.0)	8(30.8)	4(33.3)	-
정보적 지원		7(8.0)	9(10.5)	5(11.4)	3(11.5)	1(8.3)	-
경제적 지원		13(14.8)	17(19.8)	6(13.6)	4(15.4)	2(16.7)	-
적절한 환경조성		13(14.8)	14(16.3)	3(6.8)	6(23.1)	4(33.3)	1(25.0)
협조		13(14.8)	9(10.5)	6(13.6)	3(11.5)	1(8.3)	2(50.0)
기타		8(9.1)	5(5.8)	2(4.5)	2(7.7)	-	1(25.0)
계		88(100.0)	86(100.0)	44(100.0)	26(100.0)	12(100.0)	4(100.0)

표 12.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 범주와 항목

성공원인	집단	전체 (%)	학 생					성 인		
			초 (%)	중 (%)	고 (%)	대 (%)	계 (%)	부 (%)	모 (%)	계 (%)
1. 자기조절		377 (39.1)	53 (48.2)	41 (46.6)	36 (50.0)	89 (45.9)	219 (47.2)	84 (35.6)	74 (27.9)	158 (31.5)
① 노력		162 (16.6)	21 (19.1)	19 (21.6)	17 (23.6)	42 (21.6)	99 (21.3)	29 (12.3)	34 (12.8)	63 (12.6)
② 신념		60 (6.2)	10 (9.1)	8 (9.1)	4 (5.6)	6 (3.1)	28 (6.0)	16 (6.8)	16 (6.0)	32 (6.4)
③ 의지		49 (5.1)	7 (6.4)	1 (1.1)	7 (9.7)	23 (11.9)	38 (8.2)	8 (3.4)	3 (1.1)	11 (2.2)
④ 인내		36 (3.8)	6 (5.5)	5 (5.7)	2 (2.8)	1 (0.5)	14 (3.0)	10 (4.2)	12 (4.5)	22 (4.4)
⑤ 성취욕구		31 (3.3)	7 (6.4)	5 (5.7)	3 (4.2)	7 (3.6)	22 (4.7)	6 (2.5)	3 (1.1)	9 (1.8)
⑥ 목표의식		14 (1.5)	1 (0.9)	1 (1.1)	1 (1.4)	6 (3.1)	9 (1.9)	3 (1.3)	2 (0.8)	5 (1.0)
⑦ 추진력		13 (1.4)	1 (0.9)	2 (2.3)	2 (2.8)	2 (1.0)	7 (1.5)	5 (2.1)	1 (0.4)	6 (1.2)
⑧ 건강관리		12 (1.3)	-	-	-	2 (1.0)	2 (0.4)	7 (3.0)	3 (1.1)	10 (2.0)
2. 가정환경		254 (26.3)	23 (20.9)	20 (22.7)	12 (16.7)	34 (17.5)	89 (19.2)	64 (27.1)	101 (38.1)	165 (32.9)
① 부모님의 도움		95 (9.8)	17 (15.5)	11 (12.5)	10 (13.9)	21 (10.8)	59 (12.7)	7 (3.0)	29 (10.9)	36 (7.2)
② 가정의 심리적 안정		52 (5.4)	2 (1.8)	3 (3.4)	-	10 (5.2)	15 (3.2)	16 (6.8)	21 (7.9)	37 (7.4)
③ 가정의 경제적 안정		37 (3.7)	2 (1.8)	2 (2.3)	-	2 (1.0)	6 (1.3)	16 (6.8)	15 (5.7)	31 (6.2)
④ 가족의 노력		28 (2.9)	1 (0.9)	1 (1.1)	-	-	2 (0.4)	14 (5.9)	12 (4.5)	26 (5.2)
⑤ 가족 건강		15 (1.6)	-	2 (2.3)	-	-	2 (0.4)	3 (1.3)	10 (3.8)	13 (2.6)
⑥ 가족 구성원의 역할		14 (1.5)	1 (0.9)	1 (1.1)	2 (2.8)	1 (0.5)	5 (1.0)	1 (0.4)	8 (3.0)	9 (1.8)
⑦ 배우자와의 관계		13 (1.4)	-	-	-	-	-	7 (3.0)	6 (2.3)	13 (2.6)
3. 주위사람의 도움		103 (10.7)	17 (15.5)	11 (12.5)	11 (15.3)	24 (12.4)	63 (13.6)	19 (8.1)	21 (7.9)	40 (8.0)
① 친구의 도움		22 (2.3)	7 (6.4)	5 (5.7)	1 (1.4)	5 (2.6)	18 (3.9)	1 (0.4)	3 (1.1)	4 (0.8)
② 주변사람들의 도움		20 (2.1)	6 (5.5)	2 (2.3)	4 (5.6)	4 (2.1)	16 (3.4)	1 (0.4)	3 (1.1)	4 (0.8)
③ 원만한 인간관계		19 (2.0)	-	-	2 (2.8)	8 (4.1)	10 (2.2)	5 (2.1)	4 (1.5)	9 (1.8)
④ 주위의 격려		17 (1.8)	3 (2.7)	2 (2.3)	3 (4.2)	-	8 (1.7)	6 (2.5)	3 (1.1)	9 (1.8)
⑤ 주위의 관심		15 (1.6)	1 (0.9)	2 (2.3)	1 (1.4)	2 (1.0)	6 (1.3)	1 (0.4)	8 (3.0)	9 (1.8)
⑥ 정보제공		10 (1.0)	-	-	-	5 (2.6)	5 (1.1)	5 (2.1)	-	5 (1.0)
4. 성격		83 (8.6)	8 (7.3)	4 (4.5)	4 (5.6)	17 (8.8)	33 (7.1)	32 (13.6)	18 (6.8)	50 (10.0)
① 성실성		33 (3.4)	1 (0.9)	1 (1.1)	1 (1.4)	5 (2.6)	8 (1.7)	16 (6.8)	9 (3.4)	25 (5.0)
② 특정한 성격		17 (1.8)	2 (1.8)	-	-	8 (4.1)	10 (2.2)	4 (1.7)	3 (1.1)	7 (1.4)
③ 원만한 성격		11 (1.1)	2 (1.8)	-	2 (2.8)	1 (0.5)	5 (1.1)	4 (1.7)	2 (0.8)	6 (1.2)
④ 정직성		11 (1.1)	-	-	1 (1.4)	3 (1.5)	4 (0.9)	4 (1.7)	3 (1.1)	7 (1.4)
⑤ 근면성		11 (1.1)	3 (2.7)	3 (3.4)	-	-	6 (1.3)	4 (1.7)	1 (0.4)	5 (1.0)
5. 긍정적 태도		50 (5.2)	5 (4.5)	3 (3.4)	5 (6.9)	12 (6.2)	25 (5.4)	14 (5.9)	11 (4.1)	25 (5.0)
① 자신감		26 (2.7)	5 (4.5)	3 (3.4)	5 (6.9)	8 (4.1)	21 (4.5)	2 (0.8)	3 (1.1)	5 (1.0)
② 올바른 사고		24 (2.5)	-	-	-	4 (2.1)	4 (0.9)	12 (5.1)	8 (3.0)	20 (4.0)
6. 기타		98 (10.2)	4 (3.6)	9 (10.2)	4 (5.6)	18 (9.3)	35 (7.5)	23 (9.7)	40 (15.1)	63 (12.6)
① 신앙		39 (4.0)	-	2 (2.3)	-	7 (3.6)	9 (1.9)	5 (2.1)	25 (9.4)	30 (6.0)
② 앎		27 (2.8)	1 (0.9)	2 (2.3)	3 (4.2)	2 (1.0)	8 (1.7)	7 (3.0)	12 (4.5)	19 (3.8)
③ 능력		15 (1.6)	1 (0.9)	1 (1.1)	-	3 (1.5)	5 (1.1)	9 (3.8)	1 (0.4)	10 (2.0)
④ 운		11 (1.1)	1 (0.9)	4 (4.5)	-	3 (1.5)	8 (1.7)	1 (0.4)	2 (0.8)	3 (0.6)
⑤ 기타		6 (0.6)	1 (0.9)	-	1 (1.4)	3 (1.5)	5 (1.1)	1 (0.4)	-	1 (0.2)
계		965(100)	110 (100)	88 (100)	72 (100)	194 (100)	464 (100)	236 (100)	265 (100)	501 (100)

그리고 ‘가정환경’ 범주를 가장 대표하는 항목은 ‘부모님의 도움’(9.8%)이었으며, 이외에 ‘가정의 심리적 안정’ ‘가정의 경제적 안정’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었다. ‘주위사람의 도움’ 범주에는 ‘친구의 도움’ ‘원만한 인간관계’ 등이 포함되었다.

학생(47.1%)의 경우에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자기조절’을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정환경’ 및 ‘주위사람의 도움’에 대해 10% 이상의 반응율을 보였다. 학생집단 내에서 보면, 초 중 고 대학생 모두 거의 유사한 반응패턴을 나타내었다. 성인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가정환경’(32.9%)과 ‘자기조절’(31.5%)의 반응율이 거의 유사하였는데, 하위 집단별로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집

단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조절’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았고, 이와달리 어머니집단은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학생이나 성인들은 인생에서의 성공을 위해 노력이나 신념 및 의지와 같은 개념으로 표상되는 자기조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도움이나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과 같은 가정환경을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기조절은 학생들의 성취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인 중에서 어머니들은 아버지들보다 성공을 위해 부모의 도움과 같은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였다.

표 13. 성공 범주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

<학생집단>

원인 \ 성공	학업	가정생활	직업	친구관계/ 인간관계	자기개발	경제적독립
자기조절	170(56.1)	1(6.3)	3(50.0)	14(27.5)	15(40.5)	3(37.5)
가정환경	51(16.8)	10(62.5)	1(16.7)	12(23.5)	7(18.9)	3(37.5)
주위사람의 도움	34(11.2)	-	-	14(27.5)	3(8.1)	2(25.0)
성격	16(5.3)	2(12.5)	-	5(9.8)	6(16.2)	-
긍정적 태도	16(5.3)	-	-	5(9.8)	2(5.4)	-
기타	16(5.3)	3(18.8)	2(33.3)	1(2.0)	4(10.8)	-
계	303(100.0)	16(100.0)	6(100.0)	51(100.0)	37(100.0)	8(100.0)

<성인집단>

원인 \ 성공	학업	가정생활	직업	친구관계/ 인간관계	자기개발	경제적독립
자기조절	8(57.1)	51(22.2)	49(40.8)	6(28.6)	13(52.0)	16(47.1)
가정환경	2(14.3)	103(44.8)	31(25.8)	6(28.6)	6(24.0)	5(14.7)
주위사람의 도움	1(7.1)	23(10.0)	8(6.7)	2(9.5)	1(4.0)	2(5.9)
성격	1(7.1)	21(9.3)	13(10.8)	4(19.0)	1(4.0)	1(2.9)
긍정적 태도	-	9(3.9)	8(6.7)	2(9.5)	1(4.0)	2(5.9)
기타	2(14.3)	23(10.0)	11(9.2)	1(4.8)	3(12.0)	8(23.5)
계	14(100.0)	230(100.0)	120(100.0)	21(100.0)	25(100.0)	34(100.0)

성공 범주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

표 13은 성공 범주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정리한 결과이다. 학생이나 성인집단 모두, ‘학업’의 성취와 ‘직업’에서의 성취 및 성공적인 ‘자기개발’의 경우는 모두 ‘자기조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는 달리 성공적인 ‘가정생활’은 ‘가정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에 의하면 ‘자기조절’ 범주에는 ‘노력, 신념, 의지, 인내’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었으며, ‘가정환경’ 범주에는 ‘부모님의 도움, 가정의 심리적 안정, 가정의 경제적 안정, 가족의 노력’ 등의 항목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업성취 영역에서는 노력이나 의지 및 인내와 같은 자기조절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이나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과 같은 가정환경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인들에게 있어 가정생활 다음으로 중요한 성공경험으로서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업’에서의 성공과 마찬가지로 자기조절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 부모와 자녀의 비교

표 14에서 부모와 자녀집단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비교하였다. 먼저 아버지와 자녀집단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자녀들이 성공을 위해 ‘자기조절’이 가장 중요하

표 14.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 부모와 자녀의 비교

<아버지와 자녀집단>

부 자녀	자기조절	가정환경	주위사람도움	성격	긍정적태도	기타
자기조절	48(39.0)	15(31.3)	5(18.5)	5(41.7)	4(40.0)	5(45.5)
가정환경	32(26.0)	16(33.3)	8(29.6)	1(8.3)	2(20.0)	3(27.3)
주위사람 도움	10(8.1)	4(8.3)	4(14.8)	1(8.3)	-	-
성격	12(9.8)	4(8.3)	7(25.9)	2(16.7)	4(40.0)	2(18.2)
긍정적 태도	9(7.3)	3(6.3)	-	2(16.7)	-	-
기타	12(9.8)	6(12.5)	3(11.1)	1(8.3)	-	1(9.1)
계	123(100.0)	48(100.0)	27(100.0)	12(100.0)	10(100.0)	11(100.0)

<어머니와 자녀집단>

모 자녀	자기조절	가정환경	주위사람도움	성격	긍정적태도	기타
자기조절	39(29.1)	9(18.0)	9(33.3)	5(26.3)	6(46.2)	2(13.3)
가정환경	53(39.6)	24(48.0)	10(37.0)	5(26.3)	4(30.8)	5(33.3)
주위사람 도움	12(9.0)	5(10.0)	2(7.4)	-	-	2(13.3)
성격	11(8.2)	1(2.0)	1(3.7)	3(15.8)	-	1(6.7)
긍정적 태도	3(2.2)	2(4.0)	1(3.7)	4(21.1)	1(7.7)	-
기타	16(11.9)	9(18.0)	4(14.8)	2(10.5)	2(15.4)	5(33.3)
계	134(100.0)	50(100.0)	27(100.0)	19(100.0)	13(100.0)	15(100.0)

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버지 집단에서도 '자기조절'(39.0%)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았다. '가정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의 아버지도 '가정환경'(33.3%)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어머니와 자녀집단에 대한 분석은, '자기조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의 어머니는 '가정환경'(39.6%)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29.1%)을 중요한 원인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가정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의 어머니는 '가정환경'(48.0%)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과반수에 가까웠다. 어머니집단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 경우에 '가정환경'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자기조절'을 강조하는 자녀들의 경우에 대체로 부모도 '자기조절'을 강조하고, 자녀들이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 부모들도 '가정환경'을 성공의 원인으로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논의 및 결론

이상에서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들을 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IMF시대 이전에 이루어진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교하므로써,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일관성있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사람의 토착적인 성공의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밝혀진 기타 논의점들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와 기타 선행연구 결과들의 종합에 토대하여,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을 몇가지 측면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사람의 토착적인 성공의식

다른 시간상의 맥락인 IMF시대 이전이나 이후에, 다른 표집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된 연구들을 비교하여 볼 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핵심적인 결과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특징들을 한국사람의 토착적인 성공의식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한국사람들에게 지각된 자기조절의 중요성이다. IMF시대 이전의 자료를 분석한 김의철과 박영신(1998)의 연구에 의하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학생(44.6%)과 성인(35.0%) 모두 자기조절을 지적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여기에서 자기조절이란 '노력'이라는 개념에 의해 가장 대표되었으며, 이외에 '의지, 인내' 등과 같은 개념들이 포함되었다. IMF시대 이후의 자료를 분석한 이 연구에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에 의하면, 김의철과 박영신(1998)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응답자 전체적으로나 학생집단별로 볼 때 자기조절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았다. 성인집단의 경우는 가정환경(32.9%)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나, 자기조절(31.5%)이라는 반응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여기에서 자기조절이란 '노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과반수 정도이고, 이 외에 '신념, 의지, 인내' 등의 개념들이 포함되었다. 이 두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은 IMF시대를 경험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관계없이 본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신념과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성공과 관련하여서만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도 노력이나 의지의 부족과 같은 자기조절의 결여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IMF시대 이전(박영신, 김의철, 1999)이나 이후(탁수연, 박영신, 2001)의 분석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조절의 중요성은 비단 성취와 관련된 연구에서만 밝혀진 것이 아니다. 본 연구자들이 한국사람들의 토착심리에 관심을 갖고 시작했던 일련의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밝혀진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IMF시대 이전(김의철, 박영신, 1997)이나 IMF시대 상황(김의철, 박영신, 1999) 및 IMF시대 이후(김묘성, 박영신, 2001)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달랐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에서는 학생과 성인 모두 자기조절을 가장 많이 한다는 공통점을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자기조절대처란 ‘노력’이라는 개념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분전환 노력’ 및 ‘현실에 충실하려는 노력’ ‘수용하고 참는다’ ‘스스로 조절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안전의식에 대한 연구결과도, 한국사람들이 자기조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의철, 박영신, 박동현, 2001; 한기혜, 박영신, 2001)에서, 응답자의 2/3 이상(74.7%)이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기조절: 주의/조심’을 지적하였다. 이와같이 안전사고가 난 뒤에 자기조절식의 대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아니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자기조절의 결여, 즉 자기자신의 부주의에 원인을 돌리고 있었다. 박영신(2000)은 IMF시대 이전에 연구된 다양한 주제들을 토착심리학적 시각에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하고, “성취를 위한 핵심적 요

소로서의 자기조절”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사람의 자기조절식 심리기제가 늘 긍정적인 효과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Park과 Kim(1999)은 환경통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보다 자기조절 방식에만 집착하는 한국사람들의 기존 인식의 틀이,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되는데 작용했다고 보고, IMF시대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넓히고 환경통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사고의 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행동이 결정된다는 Bandura(1997)의 지적은, 개인적 요소만이 아니라 환경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예컨대 안전사고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김의철, 박영신, 박동현, 2001; 박영신, 김의철, 2001)들에서 청소년들이 안전사고 후에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시설이나 환경을 정비’했다는 반응은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자기조절: 주의/조심’을 하였다는 반응이 2/3가 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정리해 볼 때,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주의와 조심을 통한 자기조절이 도움이 되지만, 자기조절의 방식만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접(박영신, 김의철, 송동빈, 박동현, 한상환, 2000)한 결과도, 산업재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안전의식의 결여로 인한 부주의가 부각되었으며, 안전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통제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두 번째로 현저하게 드러난 결과는 한국사람의 성취를 위하여 가정의 중요성, 나아가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이다.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도

움이 된 사람이 누구인가는 질문에 대해, IMF시대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보면, 과거의 성공(김의철, 박영신, 1998)에 대해서는 학생과 성인 모두 부모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미래의 성공(박영신, 김의철, 1999)을 위해서는 학생의 경우에 부모가, 성인의 경우는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IMF시대 이후 한국사람들의 성공의식에 대해 분석한 이번 연구에서, 학생은 부모(41.1%)를, 성인은 배우자(32.4%)를 가장 도움이 된 사람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IMF시대 이후 한국사람들의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의 분석(탁수연, 박영신, 2001)에서도 학생은 부모(31.6%)를, 성인은 배우자(31.1%)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인의 만족한 성취를 위해 학생들에게는 부모가, 성인에게는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F시대 이후 한국사람의 성공의식에 대한 이번 연구결과에서, 부모나 배우자 외에 형제자매나 자녀와 같은 가족 구성원들과, 이와같이 구체적인 가족구성원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모든 합하면, 학생의 48.7%, 성인의 68.0%가 가족을 지적하였다. 학생들의 경우는 가족을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선생님과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반면에, 성인은 누구로부터도 도움받지 않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했다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학생들의 경우는 과반수가, 성인은 2/3 이상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이 가족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국사람이 삶에서 성취를 경험해 나가기 위해 가족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성공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결과 외에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인의 45.6%가 가정생활

의 성공이라고 가장 많은 비율이 지적하므로써, 한국 성인들에게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생활에서의 성공이 의미하는 바는 '자녀교육/자녀발전, 화목한 가정, 결혼생활'이 대표적이었다. 아버지들은 가정의 화목이나 부부간의 결혼생활에 더 초점을 두는 반면에, 어머니들은 자녀의 교육이나 자녀의 성장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갖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같이 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대표적인 의미는 자녀의 발전,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이다. 이는 한국 성인들,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여부 판단을 자기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공에 토대함을 보여 준다. 이것은 한국에서 자녀와 어머니가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기 보다 어머니 자아의 확대로 자녀의 존재를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Marcus와 Kitayama(1994)는 '독립적 자기와 상호의존적 자기'(independent self vs interdependent self)의 차이를 구분하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연결하여 설명한 바 있다. 이 개념은 서양인과 동양인의 자기개념을 단순화시켜 구분하는데 유용한 개념이긴 하지만, 한국사람의 모자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사람의 전통적인 모자관계는 엄격히 본다면 상호의존적이라기 보다 자아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 혼연일체의 관계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상호의존은 독립적인 자아를 유지하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부분적인 상호교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혼연일체는 둘이 하나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머니 자신보다 자식이 더 중요한 것으로 수용된다. 그래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희생을 전제로 한 혼연일체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희생에 죄송함을 바탕으로 한 혼연일체이다.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죄송함'을 느낀다는 것은 함병미와 박영신(2001)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죄송한 마음이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자기희생이 가능한가. 그것은 생물학적인 모성애의 면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서양인의 모자관계에서 발견될 수 없는 한국사람의 토착적인 모자관계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유교의 생명관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유교철학의 시각에서 자녀는 나의 연장이고 집안의 기둥이며, 대를 이어 제사를 모시는 존재로서 개인의 생명과 가문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유교철학에서 자녀는 나와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생명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기울여 왔고, 이러한 헌신적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에 에너지원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인간요인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보아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되고 있다. 학생과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성공을 위해 노력과 같은 자기조절의 중요성이 현저하였지만, 두 번째로는 가정환경의 중요성이 지적하였다. 한편 성인 여자의 경우는 오히려 가정환경(38.1%)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27.9%)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정환경이란 '부모님의 도움, 가정의 심리적 안정, 가정의 경제적 안정'이 대표적이었으며, 이외에도 '가족의 노력, 가족의 건강,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사람들이 성취를 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의 도움이나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과 같은 가

정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성인 여자는 개인의 노력이나 자기조절보다는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세 번째로는 한국사람이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부모나 배우자와 같이 주위의 의미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가 재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은 학생(37.2%)집단에서든 성인(40.0%)집단에서든 모두 현저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정서적 지원이란 '정신적 도움, 격려와 칭찬, 관심과 사랑 나눌 믿어줌'과 같은 개념들로 대표되었으며, 이외에도 '내 얘기를 들어줌, 위로, 자신감을 심어줌, 희망과 용기' 등이 정서적 지원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포함되었다. 정서적 지원 다음으로 학생의 경우는 정보적 지원(26.0%)이, 성인의 경우는 경제적 지원(16.4%)이 두번째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에 비교해 본다면 매우 낮은 반응율을 보였다.

이와같이 정서적 지원이 한국사람의 성취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은, IMF시대 이전의 자료에 대한 성공의식(김의철, 박영신, 1998)과 미래성취의식(박영신, 김의철, 1999)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 바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졌던 정서적 지원이란, '격려와 칭찬, 정신적 도움, 이해와 인정, 자신감을 심어줌, 관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의미들로 구성되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의 내용을 기술하게 하였을 때, IMF시대 이전(김의철, 박영신, 1997)이나 IMF시대 상황(김의철, 박영신, 1999; 박영신, 김의철, 2000)에서 뿐만 아니라 IMF시대 이후(김의철, 박영신, 2001)의 분석결과에서도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일관되게 확인되어 왔다.

IMF시대 이전의 토착심리학적 분석을 활용한 연구 결과들(박영신, 2000)과 IMF시대 이후의 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사람에게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성취와 같은 긍정적인 목표지향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스트레스 상황과 같이 부정적인 심리상태에서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은 특별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이 질병의 치료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ouse, Landis, & Umberson, 1988). 한국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에서도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법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일탈 청소년들의 가정은 일반 중 고등학생들에 비해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구조적인 결손을 지닌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외면적인 차이보다는 일탈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부모자녀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질적인 결함을 지닌 것이 더 근원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면접과정에서 확인되었다(한기혜, 2002). 또 다른 연구(정갑순, 2002)에서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죄송한 마음이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하위집단별로 볼 때, 학생집단에서 중, 고, 대학생과, 성인집단에서 남, 여집단 모두 정서적 지원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은데 비해, 초등학교생집단에서만 정서적 지원보다 정보적 지원의 반응율이 가장 높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이와같이 다른 패턴을 나타내는 정확한 이유를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네 번째로 한국 학생들의 삶에서 학업성취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가 재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초(87.1%) 중(70.5%) 고(72.2%) 대학생(47.8%) 모두 그동안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학업성취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의철, 박영신, 1998; 박영신, 2000)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고, 성취로 인한 만족감도 높음을 시사한다. 한국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교육열풍은 인재양성과 국가발전이라는 긍정적인 기여도 하였지만, 입시과열 과외 사교육비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동시에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이 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은 그동안의 경험 중에서 학업성취가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허숙(1994)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의 의미를 질문한 결과는, 시험 생각만해도 지긋지긋하고 두려우며, 그러한 시험이나 성적으로부터 아무런 교육적 의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어쨌든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열망의 기반은 유교문화적 배경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업에서의 성취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의 성취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성열(1994)은 한국문화의 특징을, 강한 집단성, 강한 정서성, 강한 샤머니즘 전통, 강한 유교 전통의 네가지로 정리하고, 이러한 문화적인 풍토에서 학부모들이 그릇된 교육의식과 관행을 지속하는 이유로 세가지를 지적하였다. 즉 남이 하니까 한다든가, 나만 안하면 자녀가 피해를 받을까봐 두렵다든가, 나의 자녀를 남과 다르게 차별화한다와 같은 이유들로 인한 과열화된 교육열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사회 발전의 기반으로 작용하여 왔다

(Park, 2001). 한국사회가 지속적인 성취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부정적인 면들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교육적 관심의 긍정적인 결과들을 계속 누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 논의점들

첫째, IMF시대 이전에 분석된 성취의식에 대한 결과와 이 연구에서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핵심적인 내용들에서 전반적으로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공통된 내용들에 토대하여, 이상에서 한국 사람의 토착적인 성공의식'으로 명명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으며 약간의 차이도 있었다. 다르게 나타난 결과 중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특히 눈에 띈다.

먼저,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성인들은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정의 중요성에 더욱 집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도, IMF시대 이전(김의철, 박영신, 1998; 자기조절-35.0%, 성격-18.7%, 신앙-10.9%, 가정환경-9.4%)에 한국 성인들이 가정환경을 지적한 경우는 10% 미만으로 4번째로 중요한 원인이었다면, IMF시대 이후(가정환경-32.9%, 자기조절-31.5%, 성격-10.0%)에는 가정환경에 대해 30%이상의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IMF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성인들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급격히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정환경이란 부모님의 도움이라든가,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 가족의 노력,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의 건강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IMF시대 이전(김

의철, 박영신, 1998; 직업-37.6%, 가정생활-25.0%, 자기개발-9.7%)에는 2번째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었으나, IMF시대 이후(가정생활-45.6%, 직업-24.1%, 경제적 독립-6.9%, 자기개발-5.5%)에는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의미는 자녀를 출산하여 교육시키고 자녀가 성장 발전하는 것과 같은 자녀와 관련된 측면과, 가족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고 화목한 가정과 관련된 면, 배우자를 만나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는 면의 세가지를 함축하였다. 이와같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과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에 대한 IMF시대 전후의 비교 결과로부터, 가정의 안정이 불안한 사회에서의 대처를 위한 기초가 되고, 사회적인 불안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정에서의 안정에 대한 욕구를 더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증가한 또 다른 이유로서, 사람들이 국가적인 위기요인보다는 가정적 요인을 보다 통제가능한 것으로 지각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으로, 사회가 급격한 경제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취를 위한 다른 사람의 도움에 대해,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였다. 학생들의 경우는 IMF시대 이전(김의철, 박영신, 1998; 정서적 지원-34.3%, 정보적 지원-24.7%, 적절한 환경조성-11.1%, 경제적 지원-7.5%)에 경제적 지원에 대한 반응율이 4번째였지만, IMF시대 이후(정서적 지원-37.2%, 정보적 지원-26.0%, 경제적 지원-18.0%, 적절한 환경조성-8.8%)에는 3번째로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지적한 반응율이 높았다. 성

인의 경우는 IMF시대 이전(김의철, 박영신, 1998; 정서적 지원-34.3%, 정보적 지원-24.7%, 경제적 지원-14.5%)에는 경제적 지원이 3번째로 높은 반응을 나타냈으나, IMF시대 이후(정서적 지원-40.0%, 경제적 지원-16.4%, 정보적 지원-11.4%)에는 정서적 지원 다음으로 2번째로 반응율이 높았다. 그러므로 IMF시대 이전에 비해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IMF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같은 국가 전체의 급격한 변화상황이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상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사람들이 가정의 중요성에 더욱 집착하게 된 것과, 경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이러한 두 측면에서의 변화가 한국사회의 변동에 따른 인과적인 결과임을 증명할 수는 없다. 단지 연구를 위한 표집 시기의 중간시점에 한국사회가 IMF시대를 경험하게 된 상황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개연성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분석결과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의 성취관련 표상에서 친구관계 또는 인간관계가 갖는 비중의 발달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의 발달과정에서 친구관계나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여 특히 고등학생 단계에서 그 중요성이 가장 현저해짐을 보여주었다. 이와같이 친구관계의 발달적 중요성이 확인된 구체적인 증거로 두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학생 집단의 경우에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친구관계나 인간관계를 지칭한 응답자가 초등학교 2.6%, 중학생 6.8%, 고등학생 19.4%, 대학생 15.1%로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을 거쳐 고등학생이

됨에 따라 성공적인 친구관계나 인간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지각하는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으로서 친구를 지칭한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1.7%, 중학생 11.4%, 고등학생 22.2%, 대학생 20.7%로서, 친구가 도움을 주는 비중이 고등학생이 됨에 따라 매우 증가하였다.

청소년기의 친구 중요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IMF시대 이전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김의철, 박영신, 1997)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된 사람으로 학생 전체 응답자의 63.8%가 친구를 지칭하므로써,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18.1% 밖에 되지 않았는데 비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확인된 바 있다. 또한 IMF시대 중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1999)에서도 부모를 포함한 가족 전체(13.4%)보다 친구(29.9%)에 대한 반응율이 더 높으므로써, IMF시대 이전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뿐만아니라 IMF시대 이후 한국사람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김묘성, 박영신, 2001)에서 초 중 고 대학생 전체를 포함한 표집을 하였을 때에도 IMF시대 이전이나 도중에 수집한 자료의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학생들은 친구(41.6%)가 가족(27.8%)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의 자원으로서 중요하다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로 가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타인으로서 친구의 중요성은,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와 양계민(2000)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의 발달적 변화를 검토한 결과는,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을 거쳐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부모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감소하였으나,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증가하였다. 여기에서 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을 포함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의 자료를 짝을 이루어 비교하였을 때, 성공과 관련된 의식에서 부모-자녀 사이에 유사한 점이 별로 없었다. 이는 부모와 자녀가 살아온 삶의 역사가 판이하게 다르며, 각자 경험한 삶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세대가 심리와 행동의 다양한 측면에서 세대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힌 연구들(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Kim, Park, & Kim, 2001)과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청소년은 진보지향적이라면 성인은 보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였으며, 청소년은 인기직업을 부러워한다면 성인은 안정되고 인정받는 직업을 선호하였다. 뿐만아니라 컴퓨터 활용이나 TV시청 및 음악 선호도와 같은 일상행동 또는 취미활동에서도 청소년과 성인은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자녀와 부모간의 성공과 관련된 의식에서 유사점이 별로 없게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들은, 세대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후속연구의 방향

이 연구와 그동안의 누적된 연구결과들은 후속 연구를 위한 풍부한 아이디어들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시사점들을 모두 나열하기 보다는, 본 연구자가 후속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흥미로운 주제를 중심으로 몇가지만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한국사람들의 심리형성과 행동과정에서 정서적 지원이 갖는 고유한 역동성에 대한 보다 섬세한 연구들은, 한국사람의 토착적인 심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람에게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은 심정심리(최상진, 김기범, 1999)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인의 정서적 상태, 심정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원만한 인간관계의 기반이 된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심리적인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이 개인의 성취를 위해 훨씬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정서적 지원에 포함된 항목들의 내용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부족함이나 잘못에 대해 직접적인 꾸중이나 비난보다는 격려와 위로 등의 간접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을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맥락에서 개인의 체면을 유지해 주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 줄 때, 그러한 상대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자기를 믿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더 나아가서 미안한 마음이 성취동기를 높이고, 상대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를 형성하면서 관계를 위한 희생과 봉사가 가능해 지며, 자아경계가 허물어지는 방식으로 관계에서의 결속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같이 이 연구에서 정서적 지원의 대표적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격려와 칭찬이 성취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연결되는 심리적 과정은, 개인의 수행에 대한 설득력있는 언어적 피드백이 효능감을 상승시켜 노력을 더 많이 지속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성취하는 유능감수준을 높여 준다는 Bandura(1997)의 이론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Jourden(1991)도 동일한 성취에 대해 수행의 획득 면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은 효능감을 증가시키지만, 결핍된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에 중점을 두는 것은 효능감과 성취를 감소시킨다는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국 부모자녀관계이든 교사학생관계이든 동료관계이든 어떠한 관계이든간에, 잘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받는 방식으로 상대방부터 피드백 받게 될 때, 수행자의 후속성취에 미치는 역기능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동안에도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정갑순 2002; Chung, Park, & Kim, 2001)는 다양한 인과모형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두가지 방향에서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선행 연구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가정생활이나 직업에서의 성취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지원의 매개변인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원 변인이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모두 다루고 있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특히 정서적 지원이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서 부모-자녀관계의 문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배우자관계의 문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가족관계는 사회생활에서 다른 인간관계로 확대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강한 정서적인 유대관계는 내집단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확대되고 전이된다(Kim & Choi, 1994; Kim & Park, 2000b) 가족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가 단지 성공을 위해서라기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특별히 한국사람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토착적인 심리특징들을 규명하고 이러한 심리특징들이 한국사람의 행동 선택

과 유지 및 강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는 연구를 시도해 볼 계획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밝혀져 왔고, 서양의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상진(2000)이 지적하는 바처럼, 한국사람의 부모-자녀관계는 서양의 부모-자녀관계와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사람의 부모-자녀관계가 갖는 토착적인 속성들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필요로 한다.

특별히 한국사람의 모자관계와 자기의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Hamm, Park과 Kim(2001)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들이 갖고 있는 '나의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자상함, 애정을 느낌, 고생하심, 희생적임, 근면함/강함, 무서움/잔소리' 였다. 부모들이 '나의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표상은, '사랑스러움, 착함, 기대함, 착실함/자랑스러움, 불만스러움'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해 고생하시고 희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이 눈에 띈다. 또한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의 나'에 대해 한국의 자녀들은 '편안함, 어리광을 부림, 효도함, 문제가 있음, 대화, 죄송함'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녀와 함께 있을 때의 나'에 대해 한국의 부모들은 '자부심, 책임감, 자상함, 근엄함,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 중에서 특별히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어리광을 부린다는가 효도한다는가 또는 죄송함을 느끼는 측면들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다(함병미, 박영신, 2001). 정갑순(200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죄송함을 느낄수록 학업에 대한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러 주제들과 관련지어 검토될 필요가 시사된다. 예컨대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대해 검토(Kwon, Park, & Kim, 2002 예정)하므로써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의무가 어떻게 변화되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심리 및 행동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가족관계의 역동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단지 성취와 관련된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생활만족도나 스트레스 및 이탈행동 등 건강한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그동안은 주로 자녀와 부모집단을 따로 표집하여 그들의 상대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시도한 바처럼 자녀와 부모의 자료를 상호 연결하여 집단으로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방식의 표집설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사람들의 자기조절 개념 형성과정 및 문화적 기반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 연구와 일련의 선행연구들에서 자기조절이 특별히 학업성취 상황이나 직업성취 상황에서 가장 중핵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학생들이 학업에서, 성인들이 각자의 직업에서 성공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사회적 표상을 한국 사람들은 갖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치열한 노력이 충분한 자원이 적은 한국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Kim과 Park(2000b)은 유교적인 가치가 한국에서의 가족가치와 교육적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제시한 바 있다. 즉 유교철학의 핵심적 사상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채택되고 제도화되었으며 변형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유교철학의 가족에 대한 영향에서는 사회화과정의 실제와 부모자녀관계에 관련된 측면들이 검토되었다. 나아가서 유교적

가치들이 교육적 포부수준과 성취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결과들로부터 확인될 수 있는 사실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였다. 앞으로는 유교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불교와 같은 동양사상과의 관련 속에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자기조절적인 사고들의 배경을 포괄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후속연구에서는 성인 여자의 경우에 전업주부와 직장인주부로 분류하여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 등에 대해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에서는 초 중 고 대학생으로 구성된 학생집단과, 그 학생들의 부와 모로 구성된 성인집단만을 하위집단으로 분석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의 범주(표 2 참고)를 보면, 성인 남자는 가정생활(38.5%) 못지 않게 직업(30.6%)에서의 성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인 여자의 경우는 가정생활(51.7%)에서의 성공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반응하였고, 성인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18.5%) 성취에 대한 반응이 적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성인 남자가 성인 여자보다 직업에서의 성공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성인 남녀가 직업유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연구의 성인 표집에서 직업유무별 구성을 살펴보면, 성인 남자의 95.6%가 직장인이었고 4.4%가 무직이었으며, 성인 여자의 33.3%가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66.7%가 무직이었다. 이와같이 성인 여자에서 전업주부가 많았다는 표집구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에서 밝혀진 성인 여자는 가정생활에서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가 성인 여자를 대표하는 결과라기 보다, 성인 여자 중에서도 전업주부의 의식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인 여자를 전업주부와 직장인주부로 분류하여 집단간의 차이와 유사성을 다양하게 재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성인 여자들의 직업을 통한 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직업을 가진 한국의 어머니들이 전업 주부나 전통적인 한국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나 의식 등에서 어떠한 차이점 및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성공범주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표 13 참고)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인집단의 경우에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가정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조절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표집된 성인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전업주부와 직장인주부간의 비교를 시도하는 후속연구에서는, 성공범주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도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성인집단을 직업유무 외에도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 연령에 따른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반응패턴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양적 연구와 같은 방식의 통계적인 외생변인 통제는 어렵지만 질적 연구의 결과를 보다 정교화하고 심도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친구가 성취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친구가 미치는 영향이 성취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원의 자원과 같이 긍정적인 면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청소년

년의 친구관계 역동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예컨대 보호관찰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검토(이수진, 2002)하였을 때,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최질의 정도에 관계없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일탈행동을 하거나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친구들의 수가 많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중요한 환경변인으로 친구관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명언, 이영석. (2000). 한국 기업조직에서 부하가 상사에 대해 갖는 신뢰와 불신의 기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99~120.
- 김묘성, 박영신. (2001). 한국인의 스트레스 경험과 사회적 지원: IMF시대 이후. 2001학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389-394.
- 김성태. (1986). 성리학과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움, 인간이해의 동서 비교*, 25~44.
- 김의철. (2000).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과학적 토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1~24.
- 김의철, 박영신. (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 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의철, 박영신. (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김의철, 박영신. (1999). IMF시대가 한국인의 스트레스에 미친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57~79.
- 김의철, 박영신, 박동현. (2001).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과 안전효능감.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39~63.
- 문용린, 류방란, 유한구, 박종효, 최지영. (1996). 신세대의 이해: 그들의 의식과 유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 박영신. (2000).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67~97.
- 박영신, 김의철. (1999).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7(3), 139~172.
- 박영신, 김의철. (2000). 경제불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85~117.
- 박영신, 김의철. (2001). 한국 청소년의 안전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안전교육학회, 한국안전교육학회지, 4(1), 5~24.
- 박영신, 김의철, 송동빈, 박동현, 한상환. (2000). 기업의 안전문화 진단과 안전교육에 대한 합의: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안전교육학회, 한국안전교육학회지, 3(1), 5~39.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방희정. (2000).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41~66.
- 성영신, 강정석. (2000). 소비자 광고 심리학의 새 지평: 객관성과 보편성을 넘어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120~140.
- 박광배. (2000). 언론의 심리적 영향으로부터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141~158.
- 윤호균. (1986). 불교와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움, 인간이해의 동서비교, 45~66.
- 이수진. (2002). 보호관찰 청소년의 친구관계, 학교생활, 심리행동특성의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철. (2000).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행동으로 살펴본 보행자 교통사고의 원인과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159~174.
- 이종한. (2000).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 집단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201~219.
- 전경구. (2000). 정서와 건강간의 관계: 문화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175~200.
- 정갑순. (2002).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희욱, 이춘화. (2000). 청소년의 성공의식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청소년의 비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99-R06.
- 정희욱, 전경숙, 권오실. (1997). 한 중 일 청소년

- 의식 비교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97-09.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1), 1-16.
- 탁수연, 박영신. (2001). 한국인의 실패경험과 미래성취: IMF시대 이후.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83-388.
-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0).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 한국심리학회. (1996).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1996년도 동계연구세미나.
- 한기혜. (2002).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기혜, 박영신. (2001). 한국 초 중 고 대학생의 안전의식.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95-400.
- 한덕웅. (1997). 한국 유학의 심리학적 기초 퇴계를 곡과 다산의 실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추계 심포지움, 동양심리학의 모색**, 17~40.
- 한성열. (1994). 한국문화와 그릇된 교육의식 및 관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95~107.
- 함병미, 박영신. (2001). 한국인의 가족관계를 통해 본 자기 인식: IMF시대 이후.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371~376. 2001년 10월 19~20일.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2606.
- 허숙. (1994). 학업성적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탐구.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연구**, 7(2), 23~63.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Chung, K., Park, Y. S., & Kim, U. (2001). The change, formation, and influence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AASP), "Asian Social Psychology in the 21st Century"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Collins, J. L. (1982). Self-efficacy and ability in achievement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York.
- Hamm, B. M., Park, Y. S., & Kim, U. (2001). Korean students and adults' self-concept: An indigenous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AASP), "Asian Social Psychology in the 21st Century" p. 134.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Han, K. H., Park, Y. S., & Kim, U. (2001). Koreans' consciousness about the safety: An indigenous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AASP), "Asian Social Psychology in the 21st Century" p. 137.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Jourden, F. (1991). The influence of feedback framing on the self-regulatory mechanisms governing complex decision making. Ph. D. diss. Stanford

- University, Stanford, CA.
- Kim, U. (2000). Indigenous, cultural,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A theoretical, conceptual, and epistemological analysi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265 ~287.
- Kim, U., & Berry, J. W. (1993). *Indigenous Psychologies: Research and experience in cultural context*.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 Kim, U., & Choi, S. C.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Greenfield, P. M., & Cooking, R. (Eds.). *Cognitive socialization of minority children: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Hillsdale, NJ. p.227 ~258.
- Kim, U., & Park, Y. S. (2000a). The experience of stress before and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An indigenous analysis. p.90. Paper presented at the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IACCP). July 16-21. Polish Academy of Science, Pultusk, Poland.
- Kim, U., & Park, Y. S. (2000b). Confucianism and family values: Their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Zeitschrift fur Erziehungswissenschaft*, 2, 229-249.
- Kim, U., & Park, Y. S. (in press). An indigenous analysis of success attribution: Comparison of Korean students and adults. In K. K. Hwang, K. S. Yang, P. Pedersen, I. Daibo (Eds.), *Asian social psycholog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er.
- Kim, U., Park, Y. S., & Kim, M. U. (2001). Intergenerational gap, conflict, and relationship in Korea: Comparative analysis of adolescents, adults, and the elderly.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AASP), "Asian Social Psychology in the 21st Century" p. 177.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Kim, U., Park, Y. S., & Park, D. H. (1999). The Korean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8(4), 451 ~464.
- Kim, U., Park, Y. S., & Park, D. H. (2000). The challenge of cross-cultural psychology: The role of the indigenous psycholog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1), 63 ~75.
- Kwon, Y. E., Park, Y. S., & Kim, U. (2002 예정). The transformation of Confucian family structure and values: A Korean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ICAP) "Making life better for all: A challenge for applied psychology"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Marcus, H. R., & Kitayama, S. (1994).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 ~253.
- Park, Y. S. (2001). Adolescent achievement and parent- child relationship.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scientific advances in indigenous psychologies: Empirical, philosophical, and cultural contributions". p. 1~35. October, 29-November, 1. Institute of Ethnology, Academia sinica, Taiwan.
- Park, Y. S., & Kim, U. (1999). The educational challenge of Korea in the global era: The role

- of family, school, and government. Chienese University of Hong-Kong, *Education Journal*, 27(1), 91~120. Special Issue: Conference on Restructuring the knowledge base of education in Asia.
- Sinha, D. (1993). Indigenization of psychology in India and its relevance. In Kim, U. & Berry, J. W. (1993). *Indigenous psychologies: Research and experience in cultural context*. Vol 17. Cross-cultural research and methodology series. (pp. 30-43). Sage Publications.
- Tak, S. Y., Lee, S. J., Park, Y. S., & Kim, U. (2001). Reanalyzing Koreans' achievement: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AASP), "Asian Social Psychology in the 21st Century" p. 264.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K C I

The effect of economic crisis on success attribution among Korean students and adults: An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Young-Shin Park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Uichol Kim

Dep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Soo-Yeon Tak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Korean society has significantly changed with the onset of a dramatic economic crisis in 1998. From 2000, however, the Korean economy has recovered and currently Korea is enjoying a similar standard of living and economic growth as the pre-1998 levels. This study is a follow-up analysis, comparing the results examining the success attribution of Korean students and adults in 2001 with the results obtained befor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Using the indigenous psychological approach, this study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Korean students and adults' attribution of their personal success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crisis. A total of 988 participants, consisting of 481 primary, junior high, senior high and university students and 507 adults (236 fathers and 271 mothers of the studen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Kim and Park (1998). The results indicate that students perceived their academic achievement and adults perceived successful family life as their most proud achievement. Successful family life included items such as academic success of children, healthy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and harmonious family life. The person who provided the most significant support for students were parents and for adults, it was their spouse. For students, the importance of friends' social support increased during the high school years. In terms of type of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was reported to be the most important for both students and adults. As for the reason for their success, majority of students and men reported self-regulation and for women, supportive family environment was reported as being the most important. Comparing 2001 results with the 1997 results, the importance of family increased after the economic crisis. Even with the dramatic economic crisis, however, some of the underlying pattern remain strong (such as importance of academic achievement for students, family life for adults,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especially emotional social support from family members, and believing that self-regulation would lead to success). The similar pattern of results obtain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crisis indicate that the above results reflect a fundamental values and belief system deeply imbedded in Korean mentality.

key words : Success attribution,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Self-regulation,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Academic achievement, Successful family life.

1 차원고 접수일 : 2002. 3. 16.

최종원고 접수일 : 2002. 4. 15.